

# 페루 경찰의 기발한 마약사범 검거 작전



▲ 산타 복장을 하고 마약 사범을 검거한 페루 경찰. 사진=유튜브(euronews) 캡처

‘제철’ 을 맞은 산타가 요정들을 대동하고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페루 경찰은 최근 산타와 요정으로 변복하고 비야 엘살바도르 지역에서 마약을 뿌리던 조직을 검거했다.

비야 엘살바도르 지역에선 “근래 들어 노상 강도가 부쩍 늘었다. 주민들은 마약중독자가 늘면서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면서 치안이 불안해진 원인으로 마약을 지목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산타를 투입하기로 했다. 때마침 12월이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위장하는 데 산타만한 캐릭터는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경찰은 산타와 요정으로 변복한 경찰을 지역에 풀어 비야 엘살바도르 지역에 마약을 공급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의 실체를 확인한 경찰은 우두머리의 자택을 급습, 일당을 전원 검거했다. 작전에 투입된 경찰은 산타와 요정으로 변복한 경찰들이었다.

경찰은 마약 조직 우두머리의 자택에서 나온 코카인 1187팩과 마리화나 166팩, 총기 1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용의자에게 “산타는 누구에게나 그에게 맞는 선물을 주신다. 마약을 팔았으니 산타가 경찰을 선물로 보내 주신 거지.” 라며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유산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매트 굿맨은 지난 5일 인생 첫 맥주를 들이켰다. 이날은 굿맨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21살이 되는 생일이였다.

생일 하루 전, 굿맨의 누나는 그에게 때 묻은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남긴 10 달러였다.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굿맨의 아버지는 굿맨이 21살이 되면 건네주라며 생전에 딸에게 몰래 지폐 한 장을 맡겼다. 막내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술 한잔 함께 마셔주지 못할 것을 안타깝게 여긴 터였다. 그렇게 6년이 흘러 굿맨이 드디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누나는 수년간 옷장 속에 비밀로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유산’ 을 건넸다.

생일날 아침이 밝자마자 굿맨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인생 첫 맥주를 들이켰다. 그는 “아버지가 사주신 것과 다름없다.” 며 감격스러워했다.

굿맨에게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굿맨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버지가 더는 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정말 힘들었다. 아버지는 내 행복을 위해 못할 게 없는 분



▲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굿맨의 아버지는 굿맨이 21살이 되면 주리며 딸에게 지폐 한 장을 맡겼다. 사진=트위터(매트 굿맨)

이셨다.” 며 “다가올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위해, 내 21번째 생일을 위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떠나셨다. 내가 받은 생일 선물 중 최고” 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굿맨 사연이 전해지자 한 맥주회사는 굿맨에게 맥주 8 상자를 보내오기도 했다. 해당 맥주는 살아생전 굿맨의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맥주였다.

# 28년 간 나룻배로 제자들 등·하교 시킨 교사



▲ 원 씨와 제자들. 사진=나우뉴스

28년 동안 나룻배로 제자들의 등·하교를 도운 한 교사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 지닝 웨이산현 다오상소학교의 유일한 교사이자 교장인 원지화 씨는 지난 1989년 이 학교에 부임했다. 당시 학교에는 그를 포함해 총 5명의 교사들과 수 십 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전교생의 수는 7명에 불과하다.

원 씨는 부임 이후 매일 오전 6시, 오후 4시 두 차례 나

룻배를 저으며 제자들의 등하교를 돕고 있다. 특히 매년 겨울철이면 호수가 꽁꽁 얼어붙는 탓에 이 시기가 되면 원 씨의 아내도 함께 제자들의 등하교를 도와오고 있다.

원 씨는 “마을을 둘러싼 호수 탓에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 이라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가정이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로 돈을 벌러 가는 마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 역시 부모와 함께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마을에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남아 있다면 반드시 이 학생을 위한 교사와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지금껏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원 씨는 지난 20년 동안 교육비 부족으로 공부를 중단한 제자들을 위해 자비로 장학금을 마련해 후원하고 있다. 원 씨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수는 30여 명에 달한다.

원 씨는 “어렵고 공부한 학생들 중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했고, 그 중에는 대학원 공부까지 마친 제자도 다수다.” 라며 자랑스러워했다.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